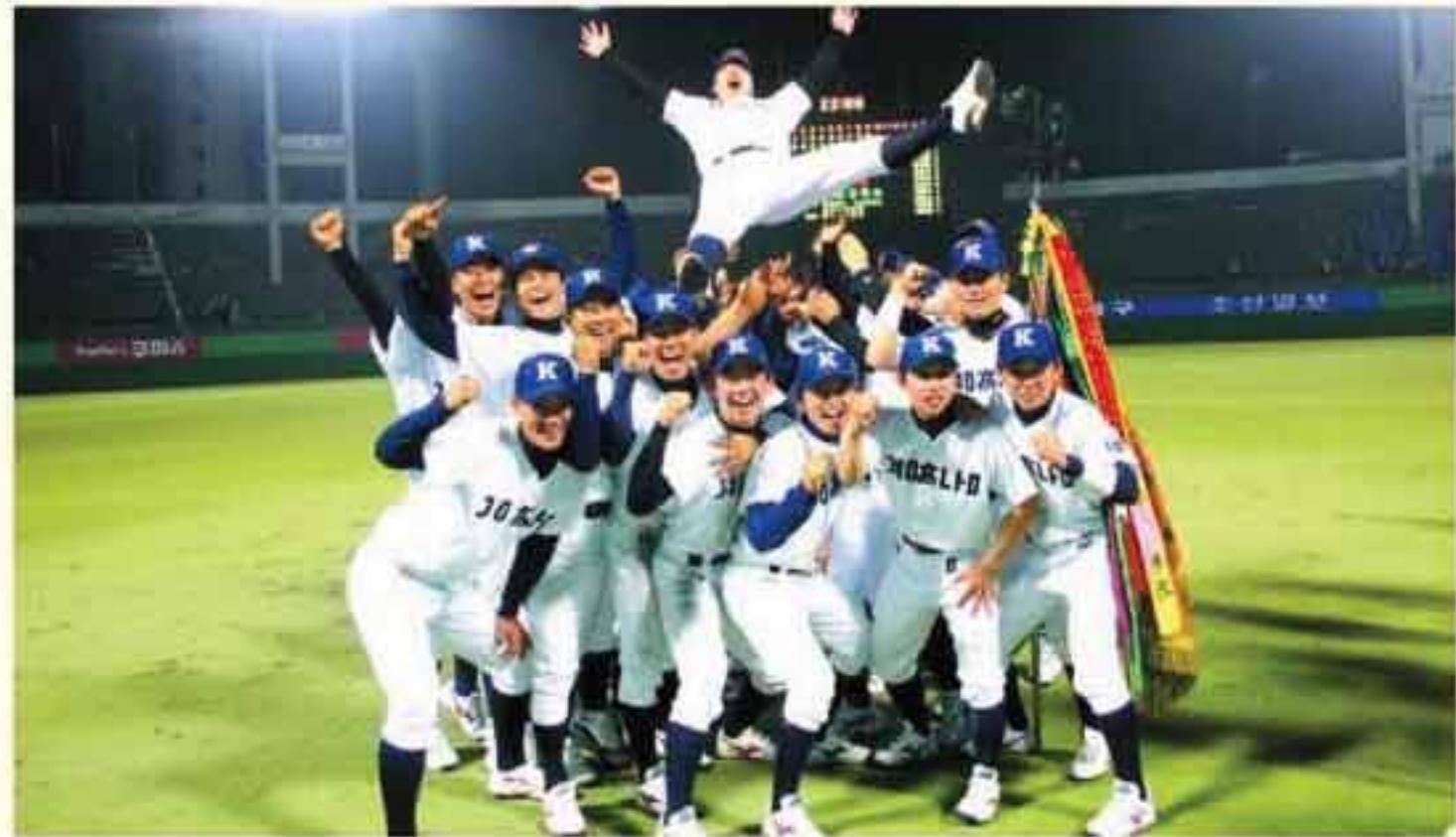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 대지 위의 王子여! 청룡기 야구 2연패

「동대문 야구장 시대」의 마지막 청룡기를 품안에



모교 경남고가 지난 6월 7일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제62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 선수권대회(조선일보·스포츠조선·대한야구협회 공동주최) 결승전에서 1975년 장단 후 처음으로 전국대회 결승에 오른 강릉고를 5대 0으로 누르고 통산 8회 우승 및 작년에 이어 2연패의 위업을 이루며 청룡기 최다우승교가 되었다.

4000여명의 동문과 부산에서 상경한 650여명의 재학생들의 응원열기가 서울의 밤 하늘을 가득 메운 가운데 곧 철거될 예정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경남고는 1947년 2회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총 13차례나 결승에 진출한 청룡기와 가장 깊은 인연을 지닌 학교가 되었으며 「동대문 시대」의 마지막 청룡기도 품에 안겨 된 것이다.

## ■ 선수단, 학부모 초청 축하연 열어

한편 본부 동창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 안강태 동창회장(11회·대선조선 대표) 주재로 선수단, 감독·코치진, 학부모, 야구후원회원, 경야회원 등을 초청하여 축하연을 열고 보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선양한 선수단을 치하하고 학부모에게는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모교야구를 사랑하는 동문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했다.

## ■ 재경동창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극 후원

재경동창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각 기수별로 연락, 결승전 참관을 독려하였으며 재학생 응원단 도시락 및 선수단 숙식비 보조 등으로 22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다.

## 선수·응원단 모두 암승

작년 제61회 청룡기대회에서 광주 진흥고와 대회 역사상 처음인 연장 16회 4시간 6분의 피탈리는 대결전 끝에 2:1승리로 우승을 거둔 경남고는 올해 대회에는 1975년 장단 후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한 야구 불모지의 강릉고와 한판승부를 벌였다.

경남고가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확실했지만 고교야구는 「아차」하는 한 순간에 승패가 좌우되는 것,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결승 진출까지 단 1점 밖에 내주지 않은 막강 마운드와 필요할 때마다 적시타를 때려주는 중심타선으로 투타 모두 안정적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강점 중에 강점이었다.

경남고의 선제공격 1회초 선두 이재곤이 볼넷을 골랐고, 보



내기 번트에 이어 폭투로 3루까지 진출, 2사 3루에서 4번 타자 장성우의 중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2회에는 홍성민의 볼넷과 투수폭투, 박정찬의 안타를

## 제30(A조)·16(B조)·29회A(C조) 우승

준우승 제11·13·24회

### 제7회 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

제7회 본부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가 지난 6월 24일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대림빌딩 4층 중앙바둑센터에서 200여명이 넘는 선수와 응원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바둑회장: 강수경·21회).

A조에서는 제30회가 11회·31회·연합팀을 차례로 꺾고 대망의 용마기를 품었

다. △준우승: 제11회(선배기수 우선) △3위: 제31회 △장려상: 제12회

B조는 사상 유래없는 25명의 응원단을 동원한 제16회가 18회·13회·14A팀을 각각 물리치고 우승을 했다. △준우승: 제13회(선배기수 우선) △3위: 14A팀 △장려상: 28B팀

C조는 대회 때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29A팀이 예상대로 24회·22회·28A팀을 잇달아

격파하고 우승하였다. △준우승: 제24회(선배기수 우선) △3위: 28A팀 △장려상: 제21회

이날 시상식에서는 우승팀에게는 우승패 및 상금 50만 원, 준우승팀에게는 준우승패 및 상금 30만 원이 각각 주어졌으며 그



외 특별상과 경품 등이 주어졌다.

앞서 오전 10시 열린 개회식은 한병조 고문(13회), 임용수 자문위원(13회), 강상대 마산기우회장(22회), 김종석 경고교장(24회), 신병식 전 SBS 논설위원(재경용마기우회 국장·24회), 황유명 본부 사무국장(29회) 등의 소개에 이어 강수경 용마바둑회장(21회) 인사말 등으로 진행되었다(사회: 임강택 바둑회 국장·22회).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주식회사 부산스타자동차

과장 오용승 46회  
전화 010 6500 6404

지난 해 12월 4일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여 어느 뜻 7개월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부임 초 부산지역의 치안책임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 끝에 「억울한 사람 없는 부산 만들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길가는 사람 열명에게 “경찰이 잘 하느냐?” 물어보면 대개 7~8명은 “경찰이 잘 하기는 무슨... 웬 영뚱한 질문인가” 하고 의아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이 24시간 불침주야로 바쁘게 일하고 근무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까지 감수하면서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분석은 경찰이 분명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정작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일보려온 사람에게 속 시원히 해주지 못하고 무언가 석연찮은 느낌을 갖게 하면서 전시적·가시적으로 많은 일을 만들어 시행하여 스스로 피곤도만 높이는 결과 때문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버리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일 보려 오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억울하지 않도록 해 준다면, 가령 8,000여명 부산 경찰관이 자기 맡은 일에 하루에 한 명씩 억울하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해 주면 하루에 8,000명의 시민이 경찰을 칭찬할 것이고, 한 달에 24만명, 1년에 288만명이 칭찬하

시 · 평

이명규(제24회)

부산지방경찰청장



## “고향 부산의 치안을 위하여” - 억울한 사람 없는 부산 만들기

계 되어 인구 360만 부산시민 모두가 1년 안에 부산경찰이 잘한다는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민은 억울한 일 없어서 좋을 것이고, 부산경찰은 평가를 잘 받아서 좋아 서로 Win-Win 하게 되어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억울한 사람 없는 부산 만들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억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부터 그 억울함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찰관서 앞에 「억울한 사람 없는 부산 만들기, 억울한 일은 청(淸)장에게 전화」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억울한 시민은 청장과 서장에게 직접 전화·e-mail하게 하여 지휘관들

이 직접 해결해 주는 직소 체제를 갖추어 억울한 사람 ZERO에 노전하고 있으며, 한편 자식을 키우는 대부분의 가정이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이 많고, 여성들도 성폭력의 불안과 영세상인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조폭들에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조직 폭력·성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학교·조직·성폭력 ZERO, 또한 집집마다 도록 들까 걱정 않는 집이 없을 것입니다.

도둑이 주인에게 들기면 강도로 돌변하고 여성에게 성폭행하게 되며 강도·살인으로까지 돌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절도 예방을 위한 강·절도 ZERO, 아울러 가장 억울한 일은 길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부산에서만 282명의 시민이 교통사

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러한 교통사망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교통사망사고 ZER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치안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상기 4개 부문에 대한 ZERO화를 위하여 VISION ZERO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로 인해 억울한 일이 이 몇 가지에 한하겠습니까!

여러 수 백 수 천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임니다만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듯이 이렇게 고질적인 억울함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다른 것도 나비효과로 재빨리 확산되어 좋아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은 부산경찰 8,000여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맡은 바 일에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는 의식을 깊이 각인시켜 정년퇴직 시까지 잊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사람 없는 부산 만들기」는 궁극적으로 부산경찰의 의식개혁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장 직을 마치고 이임하는 날, 부산경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제가 떠난 이후에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는 부산이 저절로 될 것이며, 저는 멀리서 즐거워 할 것입니다.

고향부산의 치안을 위하여!

## 청룡기 우승 축하연 개최

야구부장·감독·코치진 격려금 전달



번째 우승과 2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선전을 치하한다”고 말하면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우승의 영광을 안겨준 야구부장, 감독, 코치와 평소 아낌없는 성원을 해 온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재학생 여러분, 전국 대회 때마다 둘심양면으로 선수들을 지원해준 재경동창회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용마장학회, 우수선수 육성 지원

한편 용마장학회는 재경 구본능 동문(21회)·회성그룹 회장이 작년부터 경남고 감독 급여를 전액 지원해온에 따른 예산 여유분을 야구부 우수선수 육성에 지원하기로 올해 초 결정한 바가 있다.

본부동창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뷔페파크에서 안강대 동창회장 주재로 선수단, 학부모, 학교관계자, 야구 후원회원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청룡기 2연패를 축하하는 소연을 열었다.

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청룡기 8

### 청룡기 대회 관련 후원금 내역

■본부 △안강대(11회)=1000만원 및 축하연 △박상호(25회)=100만원  
■재경(2200만원 외)  
▶△박종구(5회)=200만원 △이규만=200만원 김기준=50만원(이상 12회) △이상택(13회)=150만원 △신준호(14회)=100만원 △제14회 재경동기회(회장 이현영)=50만원 △천신일(15회)=100만원 △제15회 재경동기회(회장 신현영)=100만원 △홍용찬=300만원 허승효=100만원 손석식=50만원(이상 16회) △배재욱=50만원 강정일·김광희·김부언·김용길·방교윤·여성국·이건웅·이의중·전광·전영부·정기태·최봉립·황상덕·고경희동 부인=각 10만원(이상 17회) △고병현(18회)=50만원 △김형오(20회)=100만원 △허정수=100만원 김갑렬·김홍근=각 50만원(이상 21회) △허범도(22회)=50만원 △변용준=100만원 하구연=50만원 변중석=30만원(이상 24회) △박상학(32회)=30만원  
▶△대회 중 선수 식사를 지원해주신 분들  
△강부부(15회) △홍용찬(16회) △김형오(20회) △구본능(21회) △제39회 재경동기회(회장 신선구) △김용주(5회)

### 본부 회비 납부 현황

〈2007년도 분〉 2007.7.4 현  
▶회장 안강대(11회)=5,000만원  
▶자문위원 김병기(11회)=100만원  
▶부회장(각 200만원·13명) △김길제(18회)  
△이용호(19회) △이재호(21회) △박홍조(22회)  
△우재진(22회) △박상호(26회) △최강호(23회)  
△김용재(29회) △윤성덕(30회) △박명진(33회)  
△김두섭(34회) △정성운(39회) △임태영(40회)  
▶명예부회장 김형오(20회)=100만원  
▶감사 김태우(27회)=100만원  
▶기별분당급 △제18회=120만원 △제24회=150만원 △제25회=150만원 △제29회=150만원 △제30회=150만원 △제31회=150만원 △제32회=120만원 △제34회=120만원 △제40회=90만원  
▶야구후원금 △제18회=80만원 △제24회=100만원 △제25회=100만원 △제29회=100만원 △제30회=100만원 △제31회=100만원 △제33회=80만원 △제34회=80만원 △제40회=50만원  
〈2006년도 분〉  
▶부회장 유재진(22회)=100만원  
▶기별분당급 △제15회=60만원 △제26회=90만원 △제36회=120만원  
▶야구후원금 △제36회=50만원



## 2007 송정여름캠프

7. 31(화)~8. 3(금) (3박4일)

부산 송정해수욕장 내 민박

“도가집”

(Tel. 051-703-4920)

16회 친구들!!!  
모~이자! 모이자! 모이자!  
아~무 이유없이!!!

◆문의 : 동기회 051-248-0016, 옥윤석 019-375-2668

韓國中·高第16回同期會

# “반갑다. 친구야!” - 모교 방문 홈커밍데이

‘영원한 마음의 고향’ 모교 방문 홈커밍데이 행사가 올해에도 신록 속에 묻힌 모교에서 열려 아름다운 추억과 신선한 감회를 되새겼다.

졸업기념 40돌을 맞은 제21회 동기회는 4월 28일 모교 방문 후 해운대 소재 파라다이스 비치 호텔에서 공식행사를 가졌

으며, 30돌의 31회, 20돌의 41회는 5월 5일 같은 날 모교에서 공식행사를 가진 후 팬스타 드림호,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각각 한마당 잔치를 벌였다.

한편, 제11회 동기회는 오는 가을에 졸업 50돌 기념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 ‘후라 경고’에 신선한 감회로 휩싸여

### 제21회 동기회

제21회 동기회는 지난 4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 해운대 파라다이스비치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축제의 막을 올렸다.

현악 4중주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연회장에는 먼저 재경지역을 비롯한 네 곁음을 한 동기들이 속속 입장장을 하자 부산지역 동기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며 반갑게 맞이하였다.

21회 동기회가 입장으로 시작된 1부 행사는 직전 회장인 오거돈 동문(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긁직한 목소리로 개회 선언을 한

데 이어 부산의 이재호 회장(변호사), 재경의 김동현 회장(인터콘티넨탈호텔 대표)의 인사말, 그리고 안강태 동창회장의 외유로 인하여 이명 본부자문위원(11회), 만용아동교육복지사업회원회 회장이 격려사를 해 주었으며 모교 발전기금은 평소 모교 야구발전에 성원을 아끼지 않는 구본능 동문(희성그룹 회장)이 전액 부담하여 경남 중·고 교장께 각각 300만원씩 전달하였다.

공로패 수여에서는 오기돈·박상기·권오균·홍순길 등문에게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본부 동창회장 공로패를 수여하였으며, 경남고 교장 감사패는 구본능·이재호, 경남중 교장 감사



패는 김동현·강수경 등문이 각각 받았다(사회: 권오균 국장)

이날 국내외에서 남편과 함께 참석한 부인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을 했었고 또 하고 있는 남편 동기들의 면면을 보고는 경고 21회 동기회에서는 인물자랑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날은 부산지역 관광명소를 둘러 본 후 조기준 동문이 경영하는 광안리 ‘할매 횟집’에서 오찬을 겸한 단합회를 가졌다.

### 선상에서 띄우는 편지

-졸업 30주년을 맞이하여-

이병태(31회, 외환은행 좌동지점장)

#### I. 달콤했던 학창시절이여

아, 우리들의 달콤했던 학창 시절이예!  
십십년 만에 네 모습을 다시 찾는구나

현내에 푸—욱 젖은 푸른 교련 복을 입고  
풀고물같은 연탄새를 벗어들여마시며, 온종일  
가상의 커트라인을 향해 정진하다가도

교정의 바찌나무 아래 봄밤이 무르익으면  
저 멀리 수원지에서 불어오는  
밥나무 향기를 어찌지 못하여 무시로  
자습실 뒷담을 넘겼었었네

#### II. 태양의 저 편으로

30년 저 쪽의 어두운 기억 저 편에서  
훤히 웃고있는 몇몇 성급한 친구들은 벌써  
태양의 저 편으로 떠났네

좋아했던 과목과 싫어했던 과목을  
유난히 구분했던 경열의 친구들은 그처럼  
빛과 어둠도 일찍 걸렀구나

#### III. 중년의 새 꿈을 찾아서

떠나온 30년을 길에 서도 쉬지 못하고  
무명으로 떠 돈 우리 중년들에게도  
꼽속의 여정은 여전히 이롭다운 것

지금은 용도폐기된 감각기능의 명부에서  
잃어버린 빛을, 향기를 되찾으려  
남쪽바다로 떠나기자

그리하여 서른 번의 애끓는 시도 끝에 모처럼  
다시 별자리를 찾은 이 중년의 봄밤에  
남쪽하늘에서 반짝이는 별하나,

별 하나에 중년의 빛과  
별 하나에 중년의 향기와  
별 하나에 중년의 새 꿈을 찾아서  
다시 떠나기자

어 우정을 모아 ‘메기의 추억’, ‘친구’ 등을 기립 합창하고, 교가 제창에 이어 ‘후라 경고’를 복이 터져라 외쳤다.

2부 행사 도중 나이를 낭보다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인 몇몇 동문을 사회자가 은사로 칭찬을 하여 웃음바다를 이루었다.

축제 다음날인 29일에는 속 시원한 대구탕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해운대-동백섬(누리마루)-광안대교-이기대-오륙도를 일주하는 유람선을 타고 부산 앞바다를 관광하였으며, 미포 ‘달맞이 횟집’에서 오찬을 하며 전날 미처 끝내지 못한 뒤풀이를 하였다.

그리하여 경남중고 제21회 동기회의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는 막을 내렸다. 10년 후 50주년을 기약하면서…….

## 꿈의 크루즈 홈커밍데이 행사

### 제31회 동기회

제31회 동기회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정오에 모교 국산 기념관에서 은사, 경고 교장, 본부 동창회 관계자들을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에서는 고영호·김대식·박인정·박종규 등문이 본부동창회장 공로패를, 김종호·조정제 등문에게 경고 교장 감사패가 각각 수여되었다.

교가제창과 ‘후라 경고’를



초청한 가운데 400여명이 참석하여 졸업 30주년 기념 모교 방문 홈커밍데이 공식행사를 거행하였다.

재경지역 동기들이 탑승한 버스들이 모교에 도착함을 시작으로 1박 2일에 걸쳐 펼쳐진 축제는 집행부의 매끄러운 진행과 참석자들의 일사불란한 협조와 호응으로 31회 동기회의 저력을 마음껏 보여주었다.

기념식은 동기회기 및 은사님 입장이 끝난 후 개회사에 이어 정정남 본부동기회장(동아 대교수), 조정제 재경회장(마스터즈코리아 대표이사)의 인사말에 이어 허홍옥 본부사무국 사무총장(19회·부산대 교수) 및 김종석 경고 교장(24회)의 축사, 은사 대표로 송두성 은사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재학생 30명에게 30만원 씩 총 9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으며, 정독실 기금으로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끝으로 기념식을 모두 마쳤으며 이날 은사님께는 그간 자주 찾아뵙지 못한테 대하여 용서를 빌과 함께 행운의 열쇠(25만원 상당) 20개를 준비하여 증정하였다.

기념식 후 모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김질한 400여 동문들은 꿈의 크루즈 여행을 위하여 모교를 떠났다.

오후 3시 환영 펑파르와 현악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탑승한 팬스타 드림호는 항상 바다와 가까이 해온 동문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을 주었으며 앞으로의 다양한 이벤트 등에 대한 기대로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이날 행운권 추첨에서는 서동균 동문(하오차이나 여행사 대표)이 제공한 4박5일 동남아 누부 여행권은 김영철 동문이 행운을 안았으며, 그 외 40여점의 상품이 동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다.

## 동기회 공로패 31명에게 수여

### 제41회 동기회

비롯한 31명에게 수여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기념식이 끝난 후 동문 가족들은 신록에 흡뻑 젖은 교정을 놀러보며 사진촬영도 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서로 나누었다.

특히 동문 자녀들은 크고 멀



이날 제31회 동기회의 졸업 30주년 기념식이 먼저 거행된 관계로 약간 늦게 시작한 기념식에서는 은사님과 내빈 소개, 본부 동기회장인 주교용 동문의 인사, 본부 동창회장 공로패와 경고 교장 감사패 수여, 교가제창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사회: 김득수 동문).

본부 동창회장 공로패는 김상환, 류지섭, 백창봉, 엄주영 동문이 경고 교장 감사패는 주교용, 홍종철 동문이 각각 받았다.

동기회에서는 모교에 야구발전기금 200만원·모교발전기금 200만원 총 4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본부 동창회에도 우수야구선수지원금으로 4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다른 기수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동기회 공로패를 제작하여 동기회 발전에 노력한 김득수 동문을

진 학교가 산 속에 오붓이 자리한 것이 신기하거나 한 것처럼 연못가, 원형관, 운동장 등에서 뛰어놀며 시간을 보내느라 다음 일정에 차질이 생길 뻔도 하였다.

해운대 그랜드호텔로 이동하여 가진 한마당여행축제는 충종월 재경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은사님에게 꽃다발 및 사은품 전달이 있었고 만찬 후 무용단 축하공연, 마술쇼, 색소폰 연주, 누인가요연주, 초대 가수 공연들을 가진 후 후라 경고, 응원가, 교가 제창을 끝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날 행운상 추첨에서는 행운상인 대형 김치냉장고를 이성일 동문이 차지하는 등 30여점의 상품이 동문들에게 돌아갔다.

해가 뜰 때까지 회포를 품은 동문들은 대구탕으로 속을 풀며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 이상택(13회) 스와질란드에 의대 설립



효산의료재단 이사장 이상택(13회·본부 부회장)이 남부 아프리카 스와질란드에 의대를 설립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30일 스와질란드 수도 음바바레에서 열린 '스와지기독교대학' 기공식에 참석해 의대 설립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상택 부회장은 의대 설립에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거액을 헌내려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풍만양봉민 명예원장인 부인 황영희 여사와 스와질란드에 정착해 혼자들을 직접 진료할 계획이다.

## 신준호(14회) 보유 주식 무상 배분



제경동창회 고문 신준호(14회·롯데우유·대선주조 회장)이 지난 4월초 「주(주)롯데우유를 롯데그룹에서 계열 분리시킨 후 자신의 보유 지분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주식 10만주를 임직원 350명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을 발표하여 서간의 이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평소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온 신동문이 직원 복지도 회사 이익만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동문은 지금의 롯데 그룹의 초석을 다진 경영자로 1967년 롯데제과 설립 때 전무로 경영에 참여한 이래 지금까지만 40년을 롯데 그룹에서 일해 왔다.

## 박종영(16회) 건설발전 금탑산업훈장



6월 20일 박종영(16회·태영건설 대표)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건설 60주년 기념 건설의 날' 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는 박동문이 건설 투명협약, 청렴 계약제 등을 통해 건설사업의 투명·윤리경영 확산과 친환경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국민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것이다.

## 이용흠(19회) 평화대사 부산시 협의회장 취임



본부동창회 부회장인 이용흠(19회·일신 설계회장)이 지난 6월 27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지구가족 공동체'와 '영구평화세계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IFWP)의 평화대사 부산시 협의회장에 취임했다.

IFWP는 UN경제 사회에 사회 특별 자문기관의 지위를 가진 국제연대기구로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한국에서는 16개시도 협의회 산하 200여개 시·군·구 협의회가 조직·활동하고 있다.

## 김갑렬(인화) 베트남에 '나베 신도시' 건설



GS건설 사장 김갑렬(21회)이 지난 5월 25일 베트남 경제수도 호찌민의 인민위원회 대회 의실에서 호찌민시 부위원장으로부터 호찌민시 나베 신도시 개발사업의 투자허가증인

서를 받았다.

나베 신도시 개발 사업은 단일 민간사업으로 동남아 최대 규모인 100만평짜리 한국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첫 사업이라 건설업체의 해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임성규(22회) 제3국 수출 확대 모색



제22회 동기회 회장인 임성규(22회·자야구후원회 회원인·부산 연공동(주)한도정과 부사장)이 우리 과일의 할로 를 국내로 국한하지 않고 해외(중국)로 넓혔다.

현재 주립농산유한공사 회장인 임동분은 항후 중국 현지시장 공략은 물론 국내와 제3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친의 기업을 이어 청과 관련 사업을 하는 임동분은 농업에 대한 30년 노하우를 이미 강의를 통해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있으며 흥사단과 (사)나눔재단 등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 박대동(23회) 금감위 상임위원



3월 6일 박대동(23회)이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에서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서울대 경제학과, 부산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시 22회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박동분은 종무처와 관세청, 재무부 금융정책과와 은행과 등을 거친 후 재경부 국세심판소 조사관, 국제금융 국제화자금과장 등을 역임했다.

## 문창진(25회) 보건복지부 차관에 임명



문창진(25회)이 지난 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보건복지부 공보관·기초생활보장 심의관·사회복지정책질장 등을 지낸 문동문은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며 업무를 치밀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9회 동기회 회장 정해돈 선임



제9회 동기회는 지난 5월 7일 오후 6시 부산 연산동 이조한정식에서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의 회장의 주재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최성욱 국장의 사회로 결산보고, 예산안 승인, 임원선출 순으로 진행하고 신임회장에 정해돈(영진의원 원장), 감사에 신도수, 부회장에 박화철, 어영구, 한동대(동문)를 선임, 국장은 최성욱(동문)이 유임되었다.

## 제14회 동기회 회장 이승오 선임



제14회 동기회는 지난 4월 12일 오후 6시 부산 중앙동 무역회관에서 35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이승오(동문·한신약국 운영) 국장에 이재인(동문·전부산시 민방위 통일안보 교관)을 선임했다. 이날 지난 2년간 동기회를 잘 이끌었던 김용호 회장은 동문들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계속 도움을 당부했다.

## 김기표(26회) 법제처 차장



4월 20일 법제처 차장에 김기표(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장 26회)이 임명됐다. 부산대 법학과를 나와 행시 19회로 공직에 입문,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행정심판관리국장 등 법제처 주요 보직을 역임한 김동문은 해박한 법제 관련 실무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의 법제화 및 정부입법 프로세스 개선 등 내부 혁신을 주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임광수(28회) 마산해수청장



임광수(28회)이 지난 5월 14일 제32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취임했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 행시 26회에 합격한 뒤 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임동문은 장관비서관, 수산정책과장, 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최근 '해양수산부 청렴오행 실천 강령'을 제정·시행해 해양수산부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 제19회 신임 회장 김철호



제19회 동기회는 지난 3월 22일 오후 7시 부산 자갈치 명물횟집에서 석무관 회장의 주재로 정기총회를 열었다. 임원 선출에서 회장에 김철호(인제대 동래백병원 소아과원장), 국장에 박성구, 김영진(동문)이 선출되었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 우의증진과 상부상조하는 제19회 동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제20회 동기회 회장 김두영 선임



제20회 동기회는 지난 4월 19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호림한정식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는 2006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 후 신임회장에 김두영(동아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고문에 김태선(의 20여명), 부회장에 장상배, 홍상호, 감사에 김일석, 박만옥, 사무국장에 장준식(동문) 등 새 집행부를 결성하였다.

## 경구회

### 제9회 동문들의 저서 전시

경구회(제9회 재경동기회·회장 서태량)는 동문들의 저서를 수집하여 전시하는 '문화자료 컬렉션' 행사를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서울 을지로 3가 소재 제9회 재경동기회 사무실에서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치렀다.

행사는 국민의례·회장 인사 및 취지 설명·저서 기증동문 축사와 격려사(김종대·단국대 명예교수, 김철규 숭의여대 명예교수, 박성조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정성근 성균관대 명예교수)·고가제창순으로 진행되었다.

김경희(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6시에 막을 내린 후, 서태량 회장이 힙스트가 되어 횃집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즐겼다. 오가는 술잔 속에 제9회 동문들의 얼과 발자취를 남기는 이작업이 계속 지속되기를 모두가 염원하면서 8시에 산회했다.

## 역사 탕방 행사도 가져

경구회는 이에 앞서 5월 20일 강원도 영월에서 춘계 역사탐방 행사를 가졌다. 29명의 용마기족들이 참석한 가운-

데 단종과 사육신, 세조(수양대군)의 발자취를 들이켜 보며 역사를 것은 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후세 사람들이 해석하기 따라 재평가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귀중한 역사체험의 시간이었다고 모두 입을 모았다.

## 16회 일육산악회

### 2007 정기산행

제16회 동기회는 지난 4월 14일 ~ 15일, 20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몇 년 전부터 중단되었던 동기회 수학여행(1박2

일) 행사의 아쉬움을 달랠기 위해 마련한 산악회 친구들의 매년 4월 정기산행을 올해도 열었다.

1박2일 일정으로 치러진 산행은 변산 반도쪽으로 방향을 잡아 전북 부안 내소사 밑에 자리한 대변산장에서 일박하고 아침 일찍 굽암산(662m)을 등반, 채석강·새만금방조제를 둘러 마이산을 경유, 할양에서 하주열(동문) 부부와 함께 지리산 국화주로 향기로운 우정의 자리를 나누었다.

이번 여행에는 서고명 산악회 회장을 비롯하여 부부 10팀, 싱글 6명, 모두 26명의 동기생들이 참가했다.

## 제31회, 통산 5번째 우승

재경주최 제39회 기별야구대회… 준우승 제29회



4월 29일 개막된 재경동창회 주최 제39회 회장기쟁탈 기별대항 야구대회가 총 6주간의 대장성을 마치고 6월 3일 제31회가 통산 5번째 우승을 달성한 가운데 폐막됐다. 제31회는 기별야구 대회에서 꾸준히 순위권에 들었던 강팀으로 지난해 테니스대회 우승을 필두로 기별야구대회 우승까지 승기를 이어갔다.

결승전은 오후 1시, 제29회의 공격으로 시작됐다. 역대 3번의 우승을 차지하였으나 한동안 대회 성적이 저조했던 제29회는 새로운 마음으로 유니폼을 맞춰 입고 부산 동문들까지 합세해 결승까지 올라왔다.

양 팀 공격은 1회부터 활발하게 진행되며, 5회까지 제31회가 11대 6으로 다소 여유 있게 리드해나갔다. 여전히 역전이 거듭된 상황은 6회초, 제29회 선수들이 불넷으로 진루하자 연이은 안타로 4점을 뽑으며 31회를 바짝 깨았고, 원아웃 이후 상황에서도 3점을 더 추가, 총 7점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에 뒤집세라 6회말에서 제31회는 선수들이 안타를 치고 나가는 등 활발한 공격력을 자랑하며 순식간에 6점을 올려 재역전에 성공했고, 7회초 다시 한 번 역전을 노린 제29회 공격을 삼자범퇴로 마무리해 17대 13으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한준석(3회)·김경희(9회) 고문, 민신웅 사무총장(16회), 김영목 기별야

구회장(23회)이 참석했다. 아침 일찍 경기장에 나와 선수들을 격려하고 떠난 홍용찬 회장(16회)의 폐회사는 김영목 야구회장이 대독했으며, 한준석 고문의 축사, 시상식이 있었다.

## 마창지역 가족사랑 체육대회

내년부터 마창·울산 합동으로 열기로

40년을 이어온 마산·창원지역동창회 주최 제29차 가족사랑체육대회가 지난 5월 13일 김우홍 회장(22회)·경남프리밸 대표(이사)의 주재로 마산 용마고등학교(구. 마산상고)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당일 행사 내용은 오전 게임(배구, 족구), 오후 가족단합 레크레이션으로 진행되었으며, 매 경기마다 뜨겁한 상품을 증정함으로써 흥미진진하고, 서로 다른 투어 게임에 출전하여 하는 등의 진풍경도 벌어졌다.

130여명의 동문·가족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울산지역 동창회에서 박홍조 회장(22회)을 비



롯하여 서정욱 감사(15회) 박태룡 사무국장(26회)이 참석하였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3회·본부고문) 동문의 축하 메시지를 비롯하여 각 지역 동창회(재경, 울산, 거제)에서 축하 화환을 보내왔다. 또한 권영길(15회·국회의원), 이근식(19회·국회의원), 김민배(27회·대한지적공사장) 동

문이 축전을, 하영제(27회·남해군수), 지역 국회의원인 이주영 의원 등이 격려 방문을 해주었고 본부동창회의 격려금 전달로 인하여 더욱 뜻 깊은 행사를 치렀다.

마산·창원 동창회는 용마인의 결속과 우정을 위해 매년 가족사랑 체육대회(5월), 하계 수련회(9월), 연말 송년의 밤(12월)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회보인 '馬昌龍馬紙'를 연3회 발간하고 있다. 또한 올해 행사에 참여한 박홍조 울산지역회장의 제안으로 내년부터는 '마창지역 대 울산지역' 동창회 간의 합동 체육대회를 갖기로 협의할 계획이다.

### 경야회 단합대회



경야회(무교야구선수출신 모임)는 지난 7월 1일 전남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 구천동계곡 일원에서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하계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길상 고문, 조홍기 회장을 비롯하여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야구후원회 활성화와 향후 경야회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구회장(23회)이 참석했다. 아침 일찍 경기장에 나와 선수들을 격려하고 떠난 홍용찬 회장(16회)의 폐회사는 김영목 야구회장이 대독했으며, 한준석 고문의 축사, 시상식이 있었다.

## 용마산악회 올해 제2차 정기산행



히 몸풀기 체조를 한 후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신남석 산행대장(21회)의 뒤를 따른 일행은 1,035봉~지소/서하갈림길~헬기장 4곳~전망대를 거쳐 폐관산 정상에 이었다(15:00). 정상에서 초록바다를 연상케 하는 주변 산군들의 아름다운 광경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삼거리~천황봉~잘록이~원산목장을 거쳐 오후 4시 30분 산행을 마무리했다.

일행은 하얏트목욕탕에서 목욕을 즐기며 여독을 풀고(17:00~17:40) 전통한국음식점인 늘봄가든에서 저녁식사로 오곡밥과 수육을 즐겼다(17:40~19:30). 그리고 일행은 이날 밤 10시 30분에 부산진역 앞에서 해단식을 치렀다.

## 포항지역회 가족동반 단합대회



한 이날 보임에는 포항지역 전체 동문(45여명)의 4/5에 해당하는 30여 명의 동문 가족 대부분이 참석하여 즐거운 화합한마당을 연출하였다.

이에 앞서 2월 15일 김 회장 주재로 정기총회를 열어 다양한 사업에 대한 활동을 위한 상호 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해, 분기별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재포항부 산중고동문회(청조)와 야구시합 등 공동 행사도 부활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 신우회 정기모임



사를 열었다. 양건종 회장(19회·만유우리교회 목사) 주재로 회원·친지 등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복음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 상호간 격려와 교제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 오는 10월 18~21일 부산 사직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부산 그레할 페스티벌'에 우리 동문들이 많이 참여 토록 하자고 뜻을 모았다.

## 제7회 본부회장기 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

# 大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용마바둑회



#### 임원명단

고문	안강태(11회) 한병조(13회) 문운용(14회) 김동희(18회)
자문위원	임용수(13회) 임강택(22회)
회장	강수경(21회)
부회장	안채식(21회) 김상수(25회) 백승엽(27회) 이석조(29회)
국장	김성희(28회) 이관선(28회) 조남훈(34회)

#### 〈인터넷 바둑 사이트 개설 안내〉

- 타이젬 (<http://www.tygem.com/>)

동호회 "용마바둑"에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 ◆가입안내

- 1) 본부동창회 사무국(T : 051-245-7551 F : 051-245-7550)
- 2) 용마바둑회 국장 임강택(011-9396-5479)
- 3) 용마바둑(타이젬)에서 가. 회원게시판(회원전용)  
나. 자유게시판(비회원 게시 가능)  
다. ID '후석'에게 쪽지 발송

용마바둑(타이젬)에서 전국동문 사이버 바둑대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lt;청룡기 관련&gt;

## 경부선 또 타고 가자

응원도 우승감

대회 통산 8번 째 우승에 도전한 전통의 야구 명문 모교가 9회 말 5대 0으로 마침내 결승전의 마침표를 찍자 동대문야구장에 가득 모인 1만 5000여명의 관중들은 내 편·네 편 할 것 없이 활성을 지르며 승자에게는 승리의



△결승전시 상경하여 열띤 응원을 벌이고 있는 모교 재학생



△부산에서 급히 상경한 강종국 동문(16회)의 성동원두를 뒤흔든 응원 플래카드, 만든 정성뿐 아니라 그 내용이 두고두고 동문들에게 회자되었다.

### 구본능 회성그룹 회장(21회) 드럼 세탁기 4대 기증

평소 모교와 동창회 사랑으로 이름이 나있는 구본능(21회·회성그룹회장) 동문이 이번에는 모교 야구부의 세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해법을 내놓아 화제이다. 바로 대용량 드럼세탁기 4대를 모교 야구부를 위하여 기증한 것. 이전에도 구 동문은 장학회 기금 이자로 지급하고 있던 모교 감독의 급여문제를 해결하여 상대적으로 그 금액만큼은 직접적인 야구부 지원에 사용할 수 있

게 하였고 병소에도 전국대회 출전 시 경비보조, 농계전 지원련비, 우수선수체력단련비 등을 지원해 왔다.

#### 이종운 감독

##### 청소년 대표팀 감독에 :

이종운 감독(39회)이 오는 8월 30일 대만에서 개막되는 제7회 아시아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한국팀 대표 감독에 선임됐다.

이 감독이 수장을 맡게 될 아시아청소년 선수권은 2년 전 한기주(KIA) 김광현(SK) 등이 주축

이 된 대표팀이 결승전에서 일본에 연장 승부 끝에 역전패 해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겼던 대회다. 이 감독은 작년에도 쿠바에서 열렸던 세계 청소년 야구대회에서 코치를 역임한 바 있다.

한편 경남고는 전국대회 세 번 까지만 출전 가능한 규정에 의하여 황급사자기 대회는 불참하였다.

### 모교, 개인상 9개나 차지

모교는 이날 15개 부문 개인상 중 최우수 선수상(MVP)을 비롯해 무려 9개 부문에서 개인상을 받았다.

△최우수선수상=하준호(3학년·투수)  
△우수투수상=박민규(2학년·투수)  
△수훈상=장성우(3학년·포수)  
△타격상=김민성(3학년·우익수·12타수 6안타)  
△홈런상=이재곤(3학년·2루수)

△최다득점상=강동호(2학년·우익수·7득점)

△감독상=이종운(감독)

△지도상=박근배(야구부장)

△공로상=김종석(교장)

### 역대 전국대회 27번 우승

모교(경남고)는 전국고교야구 대회에서 지난 6월 7일 청룡기 우승까지 통산 27번이나 정상에 올라, 명실상부한 전통의 '야구 명문' 자존심을 지켜오고 있다.

대회별 우승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룡기(조선일보) : 8회 전국체전 : 4회 △화랑대기(부산일보) : 7회

△황금사자기(동아일보) : 6회 △봉황대기(한국일보) : 2회

청룡기의 경우 1946년 첫 대회에 준우승으로 인연을 맺은 이후 모두 8번(47년, 48년, 73년, 76년, 90년, 98년, 2006년, 2007년)의 청룡을 안아 단독 최다우승과 2연패라는 급자탑을 세웠다.

(24회)은 소중히 영구 보존하겠다는 말과 함께 정 고문에게 자필보관증을 교부하였다.

#### - 알림 -

이번 366호 회보부터 개별발송 및 구독료 결 일반회원 회비(2만원) 납부 요청을 할 예정이었으나 재 경 지역을 비롯한 국·내·외 지역 회원의 회비 납부 문제의 협의·조정이 필요하여 이번 회는 종전과 같이 각 동기회·지역 회별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 구무옥 동문(8회)

#### 소장 모교사 자료 경남고에 전달

지난 4월 30일 모교 개교기념 일에 미국에 거주하는 구무옥 동문(8회)이 소장하고 있던 모교사 자료가 정행권 본부고문(9회)을 통하여 모교에 전달되었다(회보 제365호 8면 참조). 김근준 본부고문(1회)과 학교운영위원장인 허홍욱 동문(19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교장실에서 가진 전 달식에서 경남중 교지 3권(3·4호 합병호, 5호, 6호)과 경고학보(3호)를 기증받은 김종석 교장

## 모 · 교 · 소 · 식

### 모교 개교 65주년 기념식



경남고는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40분 체육관에서 개교 65주년 기념식(사진)을 거행했다. 김종석 교장(24회)을 비롯한 교직원과 재학생, 허홍욱 학교운영위원장(19회)을 비롯한 내외빈 등 1,300여 명이 참석하였고 특히 동문 대표로 김근준(1회), 정행권(9회) 고문, 조길우 부산시의회 의장(16회), 이명규 부산시 경찰청장(24회), 정영석 부산시의회 사무처장(24회), 황유명 본부동창회 사무국장(29회)

등이 참석하였으며, 박극제 서구정장, 제정환 시교육위원 등도 초청되었다. 이날 외유 중인 안강태 회장(11회)을 대신하여 정행권 고문이 장기근 속 전근교사 18명에게 기념 품을 전달하였다. 또 경남중은 4월 27일 이정환 교장 주재로 개교 기념식을 가졌다.

한편 본부동창회에서는 개교기념일을 맞아 경남중·고 재학생에게 식수용 물통과 빵·음료수 구입 보조비로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 <모교 정독실 꾸밈 후원>

경남고 우수 재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하여 과학관에 3개반의 정독실(옛 자습실)을 꾸미고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책·걸상 1조 25만원, 총 3,500만원 소요 예산 필요  
-후원해 주신 동문·기수·지역 동창회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 영원히 고마움을 표시 할 것임

※1계좌 : 10만원

※계좌번호 : 부산은행 029-01-029648-5

경남고등학교정독실기금 김종석

※성명·기수 필히 기재요망

교장실(김종석·24회) 243-7754 · 행정실 248-2186

### 정독실 후원금 내역

△남진현(19회)=300만원

△서수홍 엄종원(이상 16회) 제 16회 동

기회(회장 김 조) 구본능(21회) 박철병

(23회) 김종석(24회) 박상호(26회) 제

31회 동기회(회장 정정남) 김종명 이진

호(이상 34회) 제34회 동기회(회장 이

성업) 기독동문회(회장 양건종·19

회)=각 100만원

△안행복(24회) 이상원(26회) 김종중

(28회) 양승모(29회)=각 50만원

△오강옥(10회)=25만원

△최창희(21회) 김경남(24회) 이규생

추기복(이상 26회) 김경수(27회) 박임

철 정대화(이상 28회)=각 20만원

△하영수(12회) 김동원(22회) 김인철 큐

홍석 배종갑 손세역 안상수 장원서 차

동렬 최승국 한병배 한승철(이상 24회)

고석훈(26회) 황동하(36회)=각 10만원

### 제5회 용마 기별대항 골프대회

선우배가 어울려 축제와 와함의 한마당을 이룰  
용마 기별대항 골프대회에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7년 9월 14일(금) 09:00
- 장 소 : 강촌C.C 033-260-2000
- 참가자격 : 재경동창회원 및 기타 지역 동문
- 참가비 : 개인 25만원(기별분담금 없음)
- 입금계좌 : 하나은행 838-910-012-80507(예금주: 이선규(용마골프회장))
- 경기방식 : 27홀 동시 티오프(샷건방식)

주최 : 경남중고 재경동창회      주관 : 용마골프회  
(02-783-0071~2)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         |         |         |
|---------|---------|---------|
| 10회 양희복 | 11회 장세원 | 12회 서영태 |
| 12회 이규만 | 14회 윤승홍 | 17회 김연일 |
| 17회 임우택 | 18회 홍순배 | 23회 김영복 |
| 23회 문창호 | 24회 변용준 | 26회 옥달혁 |
| 27회 손정식 | 28회 전상원 | 29회 이범익 |
| 30회 백기언 | 31회 김문기 | 34회 김화곤 |
| 34회 이철수 | 35회 박윤섭 | 35회 황선용 |
| 36회 주보훈 | 38회 장광훈 | 39회 성충일 |

용마 B.O.B. 회원 일동(24명)